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마음으로 지은것 마음으로 푸세요

각 지원에서 오신 여러분과 너무 오래간만에 한자러 한겨울 같아요. 내가 말하고 난 뒤에는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게 되니까 미리 질문부터 해요. 하하하. 생활하는 그 속에서 나오니까요.

질문1: 대구지원에서 온 최성영입니다. 참나와 거짓 나는 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참나를 계속 지속시키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허허하... 사람이 말이예요.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야. 육신은 송장이 돼서 무효란 말이예요. 정신과 마음이 언제나 돌아다니는 데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배놓고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거죠. 정신세계를 모르면 앞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요.

과학이 발전이 되서 로켓이 올라가고 컴퓨터가 일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이를 들어 비행기가 뜬다 해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비행기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건 철학의 일이에요. 이 공부가 그러한 공부예요. 자기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세세계를 굴릴 수가 없죠. 중세세계가 버시면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죠. 그 버스 안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계에 집중을 안하고 모른다면 물질계에도 발전을 못해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과학의 두명을 파헤쳐야 진짜 과학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권의 과학이요. 지금 한창 자라가는 젊은 세대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세계정세에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 내가 한 스무살 때쯤 그 잠시 비행기가 뜨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난 생각했어요. 될 생각했느냐 하면 잠시 비행기는 자유권을 가진 마음으로써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를 넘어갈 수도 없고 접점을 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한 하는데 이것을 풀어나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예요.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우주세계를 가려고 해도 한참이예요. 또 여기 문 밖을 내다보는 거나 앉아서 댕에 집을 내다보는 거나 저 우주세계를 내다보는 거나 똑 같아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이 마음은 체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안의 눈을 갖는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려고 생각만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뭐 이 사물에 모든 것을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속을 아는 거, 어디서 온 줄 아는 거, 또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오는 신즉통이 모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오신통 가운데서는 누진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거기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리죠. 그것처럼 이 진리를 벗어나야 진리를 굴리죠.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몰랐는데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천차만별의 차이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에는 금이 모이는 데지 넘나 무쇠가 모이는 데가 아니거든요. 또 무쇠전에 금이 갈 리 없죠. 넘나전에 금이 갈 리 없고 강동 공장에 금이 갈 리 없듯이 사람은 사는 것도 그래요. 노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공무원들 또 기사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이렇게 자기의 차원대로 살고 또 모이게 돼 있어요.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고, 누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금반지를 주었다면 어디로 가져 가시겠어요? 금방으로 가져가죠? 그거 봐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해도 그 물질을 봐서 이게 어느 차원인가 봐서 차원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를 생활의 법칙이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남을 알겠어요? 너부터 믿고 너부

터 알아라 그랬거든요. 너부터 모른다면 이 우주의 섭리를 다 모르느니라. 너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리를 알아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생겼으니 너부터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태양력을 받아서 천차만별의 용도로 다 써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겠죠.

질문2: 큰스님 감사합니다. 광주지원에서 올라온 박원주입니다. 큰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큰스님을 이렇게 가까이 받게 돼서 무척 기쁘구요. 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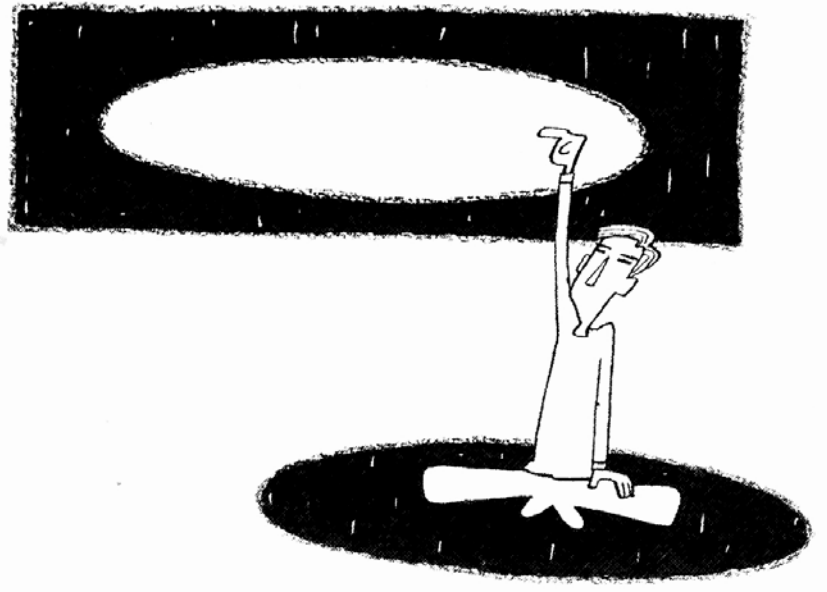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가 지은 업하고 설킨 업보 근본에 되놓아야 없어집니다

가문에 영광인 것 같습니다.(대중 웃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환희심으로 아주 충만한 때가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때는 힘이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게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렇게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스님: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넓게 써요. 왜냐하면 그럴 표현하자면 잘 되는 것만 있고 안되는 게 없으면 진리가 아니예요. 꼭 상대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갔다 하면 꼭 내려야 되죠. 그리고 내려다가 또 타고 올라와요. 잘되는 것만 있다면 이 진리는 끊어져 버리죠. 모두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에 의해서 잘 되는 것이 있고 중(中)이 있고 하(下)가 있죠. 그래서 이게 통렬하게 자기가

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면서 하(下)로 사는 사람, 중(中)으로 사는 사람, 상(上)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계속 타고만 다니는 게 아니죠. 내려서 불일 다보고 또 타고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종점과 시발점이 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 이것은 나를 가르치기 위한 거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안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고, 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것은 한생각이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한생각에서 굴러져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영키고 설킨 것도 내 한생각에 풀 수가 있죠. 한생각은 한 할

나니깐요. 그러나 우리가 열킨 것을 풀려면 무척 노력을 하고 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것은 전체가 마음으로 죄업이 되고 업보가 되고 유전성이 되고 인과성이 되고 세균성이 되고 모두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영계성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풀어야지 단 걸로는 안돼요. 도저히! 그래서 일이 다치면 독 안에 들어가 버어날 수 없듯이 대치를 못해서 꼭 당하고야 말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대치를 하려면 모든 것을 그 한 용광로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용광로라고도 하고 자기발전소라고도 하고 컴퓨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앞서의 입력된 모든 걸 지금 현실에 나오는 데다 다시 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질 테니깐요. 안 그래요?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없다는 얘기구요. 즉 번뇌도 없다. 먼저 불을 게 없애. 병고도 없다. 즉 모든 게 없다고 돌아가요.

왜냐? 그건 마음 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업하고 설킨 업보가 하루 아침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예요. 입력이 됐던 것이 하나 하나 나오는 대로 거기에다가 놓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육신처럼 금방 하늘에서 떨어진 거 모양으로 싹 가셔서 도깨비 장난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예요. 자기가 지은 거, 업하고 설킨 거를 제거하려면 하나하나 인내있게 마음을 가지고 조금도 허탈히 마음을 먹지 말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건 그 구멍밖에 없다고 믿으세요. 털구멍이라는 그것도 방편이예요. 지금 방편으로 말하자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다섯 가지 오신통이 바로 컴퓨터라고 해도 돼요. 세상은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질서가 지켜지고 사람이 살아요. 길고 짧은 게 있기 때문에 질서가 지켜지고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길고 짧은 게 없이 평등한 공부를 하면서 길고 짧은 것을 다스려 나가는 거죠. 평등한 것을 먼저 알아야 그 평등한 속에서 돌이 아니게 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은 크든지 작든지 내가 큰데 들어가면 크게 되고 작은 데 들어가면 작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내 아남이 없느니라' 했어요. 원하는 자에게 전부 무조건 주기 때문이죠. 마음이 적은 데 들어가면 적은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소한테 들어가면 소가 되는 거고, 돼지한테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거죠. 사람도 돼지로 왔다가 소로 왔다가 말로 왔다가 뭐 별게 다 되니깐요.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모습이 바뀌지거든요. 자꾸.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돼지가 됐다, 소가 됐다, 사람이 됐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애가 됐다. 늙은이가 됐다가 또는 새가 됐다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니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뉘이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역의 특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위는 이 책을 펼쳐두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들!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1.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2.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